

가정상담

2023 | 02

통권 47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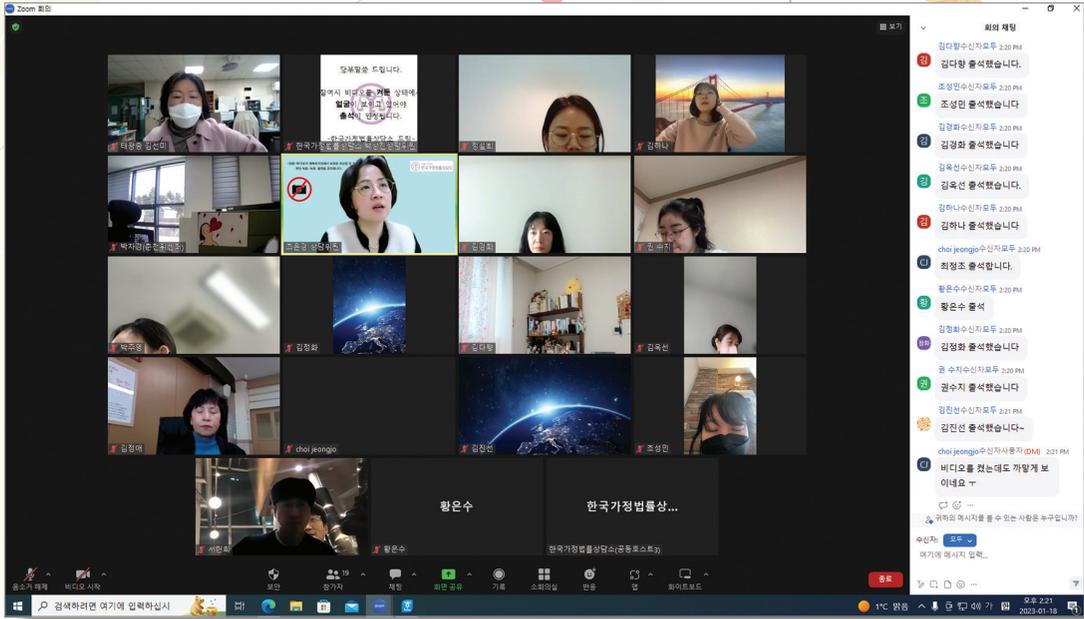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7-7568

전국 어디에서나
가정법률 관련 **화상상담**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세요

www.lawhome.or.kr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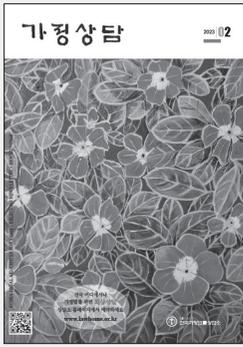
상담소 교육부는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법과 생활」 교원직무연수를 진행하였다. 수강생들은 학교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직무수행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고, 더 많은 교사들의 참여가 기대된다는 소감을 전하였다. (관련기사 33면)



법 교육의 하나로 실시하고 있는 상담소의 겨울방학 대학생 현장실습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청렴과 함께 하는 공정한 우리사회



- 4 · 이달의 메시지
- 6 · 특집 ① | 2022년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송구조 통계
- 9 · 특집 ②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혼 전 프로그램 주요 내용 분석 (2)
- 20 · 특별기획 | 음주에 관한 오해와 진실 (5)
- 24 ·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㉔
- 26 · 가정폭력상담실
- 28 · 어떻게 할까요
- 30 · 결혼과 인생(230) 영화 이야기
더 퍼스트 슬램덩크 _ 김용언
- 32 · 좋은 책
잠자는 숲속의 소녀들
- 33 · 상담소 소식과 상담 통계
- 35 · 소송구조



경제 위기와 가정의 위기

가정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한 이유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가난이 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은 (혹은 행복은) 창문으로 달아난다’라는 서양의 속담이 있습니다. 뉘앙스가 조금 다르긴 해도 ‘곳간에서 인심 난다’라는 우리 속담도 생각이 납니다. 연초부터 가스비 인상으로 우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맹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겨울이니 체감이 강렬하기 때문이고, 다음 달이면 더욱 실감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어 더 걱정입니다.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스비를 포함한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거의 20~30% 인상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것뿐 아니라 전기, 생수는 물론 각종 생필품의 가격 인상이 줄을 잇고 있어 서민들의 가계를 휘청이게 하는 현실입니다. 저소득층이나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것이며, 사실 이러한 현실로부터 자유로운 가정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 한 개인이 삶을 시작하고 마치는 곳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위한 근거이자 울타리입니다. 사회가 변화하고 복잡해지면서 가정의 형태 또한 변화를 거듭하며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이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하기에 안정된 가정은 그 구성원의 평안·행복과 직결되고 사회적 안정의 근간이 되며, 가정의 위기는 구성원의 위기를 불

러오고 이는 곧 사회의 위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정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게 되는 상담소로서는 이러한 사회 전반의 경제 위기 앞에서 흔들리게 될 가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기와 고난을 겪지 않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통과 위기 앞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며 결속하여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는 행복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의 이상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가정은 이러한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 내기도 하고 또 다른 가정은 작은 위기 앞에서도 쉽게 깨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이겨내 보자고 마음을 모아 보지만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 힘들고 지쳐서 가정은 흔들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고난이 의지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삶을 생각하는 다양한 복지정책으로 구현되는 사회적 안전망과 그것을 만들어 제도화하고 현실에 적용하는 정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가정은 가족 구성원의 삶의 근거이고 든든한 기반이자 울타리이지만 때로 외부의 충격에 쉽게 무너지는 것이 현실이기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노력과 더불어 사회와 정부의 무한책임이 요구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복지 사회를 지향하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 사회의 가정 문제를 가장 근접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상담소에서는 여러 사회적 위기가 감지될 때 가장 먼저 가정과 가족 구성원의 안위를 염려하게 됩니다. 과거 외환위기와 같은 전 국가적 경제 재난 앞에서 혼란을 겪으며 가족 사이의 갈등과 마찰이 커가는 현실을 맞닥뜨려 왔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과거의 경험에서 보듯 경제 위기의 심화는 사회 전반에 만연한 경제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고 이는 사회적 갈등 양

상을 더 확대 재생산하는 악순환을 불러올 것입니다.

급격한 고령화, 심각한 저출생 등 인구문제 전반을 둘러싼 가정과 사회의 총체적 위기 앞에서 영아수당 혹은 이 제도를 개편한 '부모급여'같이 현금을 지급하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있는 가장 쉽고 단편적인 정책들만을 내놓는 정부 당국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녀 출산 전에 어린이집에 미리 대기 등록을 해야 1년 후에 겨우 보낼 수 있을까, 말까 한다는 어려움을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한 달에 70만 원 부모급여가 저출생의 해법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간병파산'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고령화 사회에서 노부모를 돌보는 문제 또한 더불어 해결해야 할 주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육아와 보육, 교육 전반, 환경, 건강 등 우리 삶을 관통하는 모든 과제가 가정과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회적 과제와 우리 사회의 가정, 가족 구성원의 삶을 같은 범주에 두고 총체적으로 보아야 복지 사회 전반을 구축하는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속도로 고령화, 노령화 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정'을 정책의 중심에 놓는 정부의 해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경제 위기 앞에서 가정과 가족 구성원들의 고통이 또 얼마나 가중될 것인가, 지난 70여 년간, 이러한 우리 사회 가정의 위기를 함께 헤쳐온 상담소로서는 걱정과 시름이 깊어 가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가정과 가족 구성원의 버팀목으로서 더 크고 많은 역할을 다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양한 가사사건 중심으로 연 1,000여 건 이상 활발하게 진행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소송구조사업은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 양육비, 가정폭력, 친생자존부확인, 가족관계등록부, 미성년후견 등 다양한 가사사건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법원 행정처와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그리고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등의 지원과 아동권리보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과의 연계를 통해 취약·소외계층,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정 등에 대한 소송구조와 양육비이행확보, 위탁아동의 미성년 후견 선임, 파산 및 면책 등의 사건을 특화하여 소송구조를 진행하고 있다.

2022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진행한 소송구조 사건은 모두 1,003건으로 이 중 본소가 진행한 것이 456건(45.5%), 전국업무협력기관의 연계를 통해 진행한 것이 547건(54.5%)이었다. 전국업무협력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소송구조지원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지리적 격차로 인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방에서도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 17개 지역의 기관들과 '전국업무협력기관 협약'을 체결하여 본소와의 연계를 통해 소송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소에서는 그 밖에도 전국의 가정폭력상담소, 다문화가족상담센터, 가정폭력피해자보호

시설(쉼터), 법률홈닥터 등에서 연계된 피해자의 소송구조 사건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2년에 진행한 소송구조사건 1,003건 중 가사사건이 789건으로 78.7%를 차지하여 민·형사사건(214건, 21.3%)에 비하여 3배 이상 많았다(이하 표1 참조). 이는 본소가 1956년 창립 이래 가사사건에 특화된 노하우를 가진 명실상부한 가사전문기관으로써 어려운 가정이 있는 곳에 늘 함께 했기 때문이다.

가사사건 이외의 민사사건(174건)으로는 개인파산 및 면책과 개인회생 사건이 161건으로 저소득·취약계층, 노숙인들의 개인신용회복을 위한 소송구조가 대부분이었다. 그 밖에 형사사건 40건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과 관련된 폭행, 협박사건 및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고소대리 건이었다.

가사사건(789건) 중 이혼 등(이혼 / 이혼 및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청구 사건(374건, 37.3%)이 가장 많았고,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청구사건 및 미지급양육비에 대한 이행 및 강제집행 신청사건(107건,

10.6%)¹⁾이 뒤를 이었다.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혹은 면접교섭 등에 대한 사전처분 신청과 피해자보호명령을 포함한 사전처분 신청이 69건(6.9%) 있었고, 대부분 이혼 사건에서 보전처분인 가압류 신청 역시 56건(5.6%)으로 본안사건과 함께 진행되었다.

주로 위탁가정에서 위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구하는 미성년후견인선임 사건은 53건(5.3%)이었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나 변경 등을 원하는 양육친권에 관한 사건은 16건(1.6%), 가족관계등록부의 창설 혹은 정정에 관한 사건은 12건(1.2%), 가족관계등록부상 부, 모, 자녀가 실제 관계와 달라 진실에 부합하게 정정을 구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사건은 11건(1.1%) 등이었다.

2022년에 진행한 사건 1,003건 중 2022년 12월 말까지 448건(44.7%)이 종결되었다(표2 참조). 승소율은 95.5%로 대부분의 사건이 승소로 종결되었다. 한편 가사사건의 특성상 소송 중 당사자들이 협의이혼을 하거나 부부간의 화해로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 그리고 변호사에 의한 조정 및 변호사가 선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이 의뢰인의 요구를 수용하여 소 제기 후 취하로 종결된 경우가 66건 있었다.

본소의 소송구조 사건별 분류와 결과는 표3과 표4에서 별도로 정리하였다. 전국업무협력기관 연계사건이 포함된 전체 소송구조사건에 비하여 양육비, 미성년후견, 파산 및 면책 등의 사건의 비율이 높고 승소율도 더 높다. 본소의 양육비, 미성년후견, 파산 및 면책 등의 사건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이들 사건을 특화하여 관련기관들과 연계를 갖고 집중적으로 지원하는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피해를 당하는 국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고 가족 복리를 기할 수 있도록 상담소를 찾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관공서 및 지역사회 단체들과 함께 구조가 필요한 사례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법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대면상담의 어려움 속에서도 면접상담뿐만 아니라 전화, 사이버, 서신, 화상상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담창구를 열어 내담자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가사문제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에 터잡은 인지도와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1,003건의 소송구조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다. 상담소는 앞으로도 위기가정의 다양한 문제 상황에 따른 소송 욕구를 더욱 면밀하게 반영하여 내담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법률구조를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다.

〈표1. 2022년 전체 소송구조 사건별 분류〉

항목	구분	빈도(건)	비율(%)
가사 (789건, 78.7%)	이혼	374	37.3
	양육비	107	10.6
	미성년후견인선임	53	5.3
	양육친권	16	1.6
	인지	15	1.5
	가족관계등록부	12	1.2
	친생자존부	11	1.1
	면접교섭	8	0.8
	위자료/재산분할	6	0.6
	유언/상속	4	0.4
	친생부인	2	0.2
	성년후견	2	0.2
	사전처분	69	6.9
	가압류	56	5.6
가사기타	54	5.4	
민사 (174건, 17.3%)	개인파산/면책	155	15.4
	개인회생	6	0.6
	민사기타 (양수금, 채무부존재 확인 등)	13	1.3
형사 (40건, 4.0%)	형사기타	40	4.0
계		1,003	100.0

1) 미지급양육비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진행된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및 직접지급명령,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의 신청사건을 포함하여 산출하였다.

〈표2. 2022년 전체 소송구조 결과〉

	빈도(건)	비율(%)	승 소 율* 95.5(%)		
종 결	448	44.7	종결사건 448(건)		
진행중	555	55.3	승소	패소, 각하	기타, 소취하
계	1,003	100.0	358	17	73

* 승소율 : (승소)/(승소+패소, 각하)(2022. 12. 31.기준)

〈표3. 2022년 본소 소송구조 사건별 분류〉

항목	구분	빈도(건)	비율(%)
가사 (305건, 66.9%)	이혼	109	23.9
	양육비	55	12.1
	미성년후견인선임	51	11.2
	양육친권	7	1.5
	인지	10	2.2
	가족관계등록부	9	2.0
	친생자존부	8	1.8
	면접교섭	1	0.2
	위자료/재산분할	1	0.2
	유언/상속	1	0.2
	친생부인	2	0.4
	사전처분	6	1.3
	가압류	1	0.2
	가사기타	44	9.7
	민사 (145건, 31.8%)	개인파산/면책	137
개인회생		1	0.2
민사기타(양수금, 채무부존재확인 등)		7	1.5
형사 (6건, 1.3%)	형사기타	6	1.3
계		456	100.0

〈표4. 2022년 본소 소송구조 결과〉

	빈도(건)	비율(%)	승 소 율* 98.2(%)		
종 결	246	53.9	종결사건 246(건)		
진행중	210	46.1	승소	패소, 각하	기타, 소취하
계	456	100.0	219	4	23

* 승소율 : (승소)/(승소+패소, 각하) (2022. 12. 31.기준)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혼 전 상담프로그램 주요 내용 분석 (2)*

2. 2011년~2021년

- 상담내용

가. 2011년

18회기 진행, 45명(여성 41명, 남성 4명) 참여

▶ 2011년 10월 10일

- 참가자 : 여성 4명

- A씨 : 여성 60대, 부부갈등 사유 : 이혼 후 상실감
- B씨 : 여성 30대, 부부갈등 사유 : 폭력
- C씨 : 여성 60대, 부부갈등 사유 : 가출, 자녀와 갈등
- D씨 : 여성 30대, 부부갈등 사유 : 가출

- ① A씨(아내) : 6년 전 이혼하였는데 상실감과 후회로 인하여 상담에 참여하였다. 최근 자녀와의 사이도 소원해져서 감정적으로 의기소침하고 우울한 상태이다.
- ② B씨(아내) : 신혼 초부터 사소한 일로 가정 폭력이 있었다. 남편은 기분에 따라 폭력을 사용하며 아내는 최소한 폭력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상담에 참여하였다. 부부간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그 외에 경제적인 문제도 산재하여 있다.
- ③ C씨(아내) : 남편은 여전히 가출 중이고 집에 돌아올 것을 권유하였으나 자녀와의 갈등을 이유로 거절하였다.
- ④ D씨(아내) : 평소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던 상황에서 여행을 다녀온 이후 남편으로부터 이혼요구를 받았고, 현재 남편은 가출 상태이다. 아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 우울한 것을 남편이 견디지 못한다.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지만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의 태도에 크게 상처받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

* 본소가 지난 2021년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진행한 「이혼법제 개선방안 연구 - 이혼 절차 중 상담제도화를 중심으로」 가운데 4장의 내용인 본소의 이혼 전 상담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분석을 게재하며 지면 관계상 상담사례 부분은 연도별 한, 두 회차만 소개하였다.

나. 2012년

15회기 진행, 38명(여성 30명, 남성 8명) 참여

▶ 2012년 1월 16일

- 참가자 : 여성 3명, 남성 1명

- A씨 : 남성 40대, 혼인기간 6년, 자녀 1남(5세), 부부갈등 사유 : 생활양식차이, 대화단절
- B씨 : 여성 40대, 혼인기간 6년, 자녀 1남(5세), 부부갈등 사유 : 생활양식차이
- C씨 : 여성 40대, 혼인기간 14년, 자녀 1남 1녀(14세, 12세), 부부갈등 사유 : 폭력, 성격차이
- D씨 : 여성 50대, 혼인기간 24년, 자녀 2녀(25세, 18세), 부부갈등 사유 : 외도, 주벽, 대화 단절

- 상담내용

- ① A씨(남편)-(B씨와 부부관계) : 남편은 아내와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사업적으로 마찰이 심해서 부부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남편은 아내와 이혼을 원하지는 않으나 부부갈등이 심한 상태에서 같이 사는 것이 매우 힘든 상황이다.
- ② B씨(아내)-(A씨와 부부관계) : 남편은 부부갈등의 원인으로 사업적 문제를 꼽는 반면, 아내는 그보다는 남편이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것이 더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아내가 있는데도 남편은 술자리에서 다른 여자를 껴안고 있는 등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 행동을 하여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 ③ C씨(아내) : 아내는 평소 남편과의 성격차이로 인해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 하루는 부부싸움 중 남편이 아내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현재는 별거 중이다.
- ④ D씨(아내) : 남편의 주사 및 외도로 인하여 부부 간 갈등이 있었다. 최근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한다.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으나 남편은 아내

와의 대화도 거부하고 이혼만 요구하는 상황이다.

- 상담자 견해

- ① A씨(남편), B씨(아내)에 대하여 : 부부가 각자의 틀에 서로를 맞추려고만 하는 듯. 자기의 틀에 상대방을 맞추려고만 하지 말고, 본인이 먼저 배우자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행동 했을지 대화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 ② C씨(아내)에 대하여 : 남편이 폭력을 행사한 것은 문제, 내담자가 진정 이혼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혼란스러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혼 준비를 하더라도 우선은 남편과 대화 해 볼 것을 권유한다.
- ③ D씨(아내)에 대하여 : 내담자는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유능한 사람인 것에 비해 남편은 가진 것이 너무 없다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감정을 외도로 표현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내담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남편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조금 더 시간을 가지며 남편과 대화를 시도해 볼 것을 권유한다.

다. 2013년

12회기 진행, 36명(여성 30명, 남성 6명) 참여

▶ 2013년 7월 22일

- 참가자 : 여성 2명, 남성 1명

- A씨 : 남성 60대, 혼인기간 34년, 자녀 3녀, 부부갈등 사유 : 외도
- B씨 : 여성 50대, 혼인기간 32년, 자녀 1남(30세), 부부갈등 사유 : 폭력, 의처증
- C씨 : 여성 50대, 혼인기간 34년, 자녀 1남2녀(33세, 32세, 31세), 부부갈등 사유 : 외도

- 상담내용

- ① A씨(남편) : 아내의 외도로 부부 간 갈등이 심화되었다. 아내가 용서를 빌고 가정으로 돌아오겠다고 하였지만 마음이 너무 괴롭고 생각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
- ② B씨(아내) : 아내는 평소 남편과 성격차이로 갈등이 있었으며, 최근 들어서는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여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아내는 이혼을 원하는 반면 남편은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
- ③ C씨(아내) : 아내는 최근 약 10년간 외도를 지속해 온 남편의 행적을 알게 되었다. 남편이 아내에게 사과를 했지만, 아내는 남편의 성격이 우유부단하고 정에 약하여 내 연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은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는 않고, 남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노력하고자 한다.

- 상담자 견해

- ① A씨(남편)에 대하여 : 내담자가 내담자의 아내와 이혼할 생각이 없다면 외도 문제는 덮어두는 것이 좋을 듯 싶다. 그러나 그 전에 내담자 스스로가 입은 마음의 상처를 충분히 치유하지 않는다면 이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상담가에게 상담을 받아볼 것을 추천한다.
- ② B씨(아내)에 대하여 : 내담자의 남편과 내담자의 기준이 달라서 부부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내담자의 입장에서는 남성 친구들과 통화하는 것이 부정한 행동이 아닐 수 있지만,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어떤 이유에서든 남편이 폭력을 행사한 것은 결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지만, 내담자는 남편의 입장을 조금 더 헤아릴 필요가 있다.
- ③ C씨(아내)에 대하여 : 내담자는 내담자의 남편이 외도를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대화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어렵더라도 가정 내에서 남편의 자리를 확고하게 해 주어야 남편이 돌아올 수 있다.

라. 2014년

12회기 진행, 17명(여성 15명, 남성 2명) 참여

▶ 2014년 1월 27일

- 참가자 : 여성 2명, 남성 1명

- A씨 : 남성 50대, 혼인기간 33년, 자녀 1남1녀(31세, 29세), 부부갈등 사유 : 폭력, 성적갈등, 대화단절
- B씨 : 여성 50대, 혼인기간 33년, 자녀 1남1녀(31세, 29세), 부부갈등 사유 : 폭력, 경제갈등
- C씨 : 여성 40대, 혼인기간 22년, 자녀 1남1녀(23세, 21세), 부부갈등 사유 : 배우자의 이혼강요, 성격차이

- 상담내용

- ① A씨(남편)-(B씨와 부부관계) : 남편은 과거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 남편은 아내가 과거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춰내 부부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 불만이다.
- ② B씨(아내)-(A씨와 부부관계) : 남편의 폭력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부부갈등이 심화되었다. 남편은 현재 혈압이 높고, 과거에 중풍에 걸려 투병생활을 겪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끊지 못할 정도로 자기관리에 소홀한 사람이다. 아내는 남편과 같이 사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다.
- ③ C씨(아내) : 남편이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이혼을 강요하고 있다. 남편은 현재 이혼조정을 신청한 상태이다. 아내도 남편과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하였으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으나 남편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것에 심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 상담자 견해

- ① A씨(남편)에 대하여 : 내담자는 상담 중 상담내용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상담자에게 폭언을 하고 자리를 떠서 제대로 된 상담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 ② B씨(아내)에 대하여 : 남편이 내담자와 함께 상담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 상담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였다.
- ③ C씨(아내)에 대하여 : 내담자는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아직 이혼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혼을 하기 전에, 이혼 후 각자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민해보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마. 2015년

8회기 진행, 12명(여성 11명, 남성 1명) 참여

▶ 2015년 3월 23일

- 참가자 : 여성 1명, 남성 1명

- A씨 : 여성 40대, 혼인기간 23년, 자녀 1남1녀(24세, 21세), 부부갈등 사유 : 외도(2015년-2월-01, 2015년-3월-01, A씨와 동일인)
- B씨 : 남성 30대, 혼인기간 1년, 자녀 1남(1세), 부부갈등 사유 : 종교갈등

- 상담내용

- ① A씨(아내) : 남편의 외도로 부부갈등이 심화되었다. 남편이 지속적으로 외도를 하고 있으나, 아내는 자녀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 결심이 서지 않고 있다. 아내가 남편과 대화 해 보려고 시도했으나 남편은 이를 거절하였고, 아내는 남편과 제대로 된 대화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있다.
- ② B씨(남편) : 아내의 과도한 종교활동 및 폭언으로 부부갈등이 심화되었다.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이사, 개명 등 무리한 요구를 하며, 아내는 남편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한다. 남편은 자녀를 생각해서 이혼은 하

고 싶지 않으나, 아내의 무리한 종교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 상담자 견해

- ① A씨(아내)에 대하여 : 내담자가 아직 심리적으로 남편에게서 독립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힘들더라도 본인이 이혼에 대한 심리적인 준비가 될 때까지 시간적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 ② B씨(남편)에 대하여 : 아내가 어떤 이유에서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지 먼저 대화할 필요가 있다. 내담자는 아내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거절하되, 왜 아내가 그러한 욕구를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바. 2016년

14회기 진행, 21명(여성 13명, 남성 8명) 참여

▶ 2016년 11월 14일

- 참가자 : 여성 1명, 남성 1명

- A씨 : 여성 30대, 혼인기간 17년, 자녀 1남(13세), 부부갈등 사유 : 성격차이
- B씨 : 남성 40대, 혼인기간 18년, 자녀 2녀(19세, 24세), 부부갈등 사유 : 성격차이

- 상담내용

- ① A씨(아내) : 남편은 분노조절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남편이 화를 내는 강도가 점점 심해지는 데다 신체적 폭력도 행하고 있다. 가장 심한 것은 언어폭력이다. 남편은 본인이 욕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아내가 반찬이나 빨래 등 아내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한다.
남편이 아내에게 같이 있기 싫으니 이혼해서 나가라고 문자를 보내, 아내는 남편에게 회사에 소문 퍼지기 싫으

면 폭언 그만하고 이성적으로 접근하라고 답장했다. 아내의 협박할 의도는 없었지만, 남편은 이를 협박으로 받아들이고 열 통 넘게 문자를 보내며 아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날이 없다고 한다.

아내는 이혼할 생각이 확실하지는 않아서 남편과 다시 잘해보고 싶어 한다. 아내도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이제 같이 살 거라면 남편에게 거친 표현 때문에 힘들었다고는 알려지, 소홀해 보였을 수 있지만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같이 잘해보고 싶다고 한다.

② B씨(남편) : 아내도 이혼을 원하지만, 남편은 아내가 마음만 조금 바꿔주기를 더 원한다. 남편은 아내의 며느리 역할을 바라는데, 아내는 그런 적이 없어 가족들 사이에서 남편 입장이 난처하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본가에 다녔는데, 그 이후로는 전혀 가지 않는다.

남편은 전혀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않다가, 혼인 전에 아내가 임신하자 이야기했다.

아내도 시가에 가지 않지만, 남편도 처가에 가지 않는다. 남편이 안 가고 싶은 건 아니지만, 처가에서 남편을 사위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남편이 최근 처가에 갔을 때는 불법 가택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 당했다.

- 상담자 견해

① A씨(아내)에 대하여 : 내담자의 남편 입장에서는 부부관계도 안 해주니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엉뚱한 데서 화를 내는 것일 수도 있다. 내담자가 아직 이혼할 마음이 굳세지 않아 보이고, 이혼할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어느 정도는 서로 맞출 필요가 있다. 지금 상태에서는 대화가 필요하다. 내담자가 남편에게 잘못된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며 마음을 풀고 이야기하면 남편도 마음을 열 수 있을 것이다.

② B씨(남편)에 대하여 : 아내가 시가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법률적으로 이혼하기 힘들다. 내담자는 과거에 혼인한 적도 있고 슬하에 자녀도 한 명 있는 것을 속이고 아내를 만나 임신시켜서 붙잡아 결혼하게 되었지만, 아내는 경제적으로 힘든 남편을 도와 간호사로 일하며 전

처와의 자녀도 본인의 자녀처럼 키우며 집안일까지 열심히 해냈다. 내담자의 어머니가 아내에게 첩으로 들어와 아들도 못 낳는다고 구박하는 것에 깊게 상처받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다. 아내가 혼자 와서 상담을 받아 봐야 할 것 같다.

사. 2017년

14회기 진행, 34명(여성 28명, 남성 6명) 참여

▶ 2017년 6월 12일

- 참가자 : 여성 2명

● A씨 : 여성 30대, 혼인기간 1년, 자녀 1녀(1세), 부부갈등 사유 : 폭력, 불성실한 생활

● B씨 : 여성 60대, 혼인기간 42년, 자녀 2남(44세, 38세), 부부갈등 사유 : 외도, 성격차이

- 상담내용

① A씨(아내) : 아내는 남편이 나이가 40이 넘도록 스스로 일해 돈을 벌어 본 적이 없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람이라 갈등이 심한 상태라고 한다. 아내는 현재 육아휴직 중인데 곧 복직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하려고 왔다. 남편은 개선의 여지가 없고 시가에서도 현재 상황에 대해서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며칠 전에 다툼이 있었고 현재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시가로 간 상황이다. 남편은 아이를 볼모로 아내를 설득할 생각인 것 같다. 아내는 번번이 그 방법 때문에 먼저 남편에게 지고 들어갔는데 더 이상 그럴 마음이 없다. 아내는 독하게 마음을 먹고 버티고 있는 중이다. 남편이 아내에게 짐을 싸서 나가라고 한 상황인데 아내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 생각 같아서는 나와 있고 싶은데 나중에 이혼 소송에서 문제가 될까 우려된다고 한다.

② B씨(아내) : 아내는 남편의 잦은 외도로 고통받고 있다.

남편이 지금도 외도 중이라 도저히 못 참고 남편을 내쫓은 상태이다. 남편은 이혼할 생각이 없고 잘못했다고 빌고 있다.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는 의미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명의를 아내로 해준 상태이다. 하지만 알고 보니 남편이 내연녀를 위해 아파트에서 5천 만 원 가량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 아들 둘 중 큰아들은 합치기를, 작은 아들은 어머니가 행복할 수 있는 쪽으로 결정하길 바라고 있다. 아내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나 당장 남편을 만나고 싶지는 않다.

- 상담자 견해

- ① A씨(아내)에 대하여 : 남편에게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이고 아내가 참고 지내기에는 아직 젊고 생활능력도 있어 이혼을 고려해볼 만하다. 다만 선부르게 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이혼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아내가 이혼소송을 할 경우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증명할 만한 것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부부가 같이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지만 남편의 협조 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다.
- ② B씨(아내)에 대하여 : 아내는 상처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너무 오래 참고 있다 폭발해서 감당이 어려운 상태이지만 심성이 착해서 이혼하고 남편을 내치면 아내 자신도 계속 고통받을 것 같으니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기를 권하였다. 현재 남편에게 6개월의 시간을 주고 떨어져 있도록 했는데 아내가 잘했다고 생각되고 그 이후에도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 좀 더 시간 유예를 두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아. 2018년

17회기 진행, 34명(여성 22명, 남성 12명) 참여

▶ 2018년 1월 22일

- 참가자 : 남성 2명

- A씨 : 남성 60대, 혼인기간 33년, 자녀 1남1녀(32세,30세), 부부갈등 사유 : 외도, 거짓말, 불성실한 생활
- B씨 : 남성 60대, 혼인기간 32년, 자녀 1남1녀(31세,30세), 부부갈등 사유 : 성격차이

- 상담내용

- ① A씨(남편) : 여행을 가면 아내는 핸드폰을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 놓고 절대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고 화장실에 있는 시간이 긴 것으로 보아 누군가와 전화를 하는 것 같다고 느낀다. 집에서도 아내는 계속 핸드폰만 보고 남편은 심심하여 술만 마시고 있다. 남편은 아내가 계속 개인 돈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자녀의 바지 고무줄이 뜯어졌는데 아내는 이를 일주일 동안이나 고치지 않았다. 남편이 이에 대해 말하면, 아내는 네가 뭔데 나에게 일을 시키느냐는 식으로 행동한다.
- ② B씨(남편) : 아내는 아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겐 관찮게 대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또한, 남편 가족의 제사, 장례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는다. 현재 남편은 황혼이혼을 생각 중이다. 그래서 연금의 절반을 아내에게 주고, 집 역시 아내의 이름으로 하는 조건을 제시하였지만, 아내는 자녀들이 결혼할 때까지는 이혼을 못 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부는 자녀가 생기고부터 같은 공간 안에서 독립된 생활을 해왔다. 남편은 밥, 빨래 등을 모두 혼자 해왔고, 남편은 안방을, 아내는 거실을 썼다. 남편은 교육자이고, 집안에 이혼한 사람이 없어서 참고 살았다고 한다.

남편은 안방에 있으면 방학 때 하루 종일 지루해서 페이스북이나 행아웃 등을 통해 외국 여자들과 채팅하고, 친구들과 카톡하고. 책 읽고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내고 외로움을 달랬는데, 이제는 한계가 왔으며, 퇴직이 6개월 남으니 우울해진 상황이다. 최종적으로 아내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남편은 법적으로 이혼을 진행하려고 한다.

- 상담자 견해

- ① A씨(남편)에 대하여 : 남편이 계속 아내를 의심하는 느낌이 들고, 아내를 언제 내칠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면 아내가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으므로 남편이 아내를 신뢰해주어야 한다. 한 면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하며 모든 면을 봐야 한다.
- ② B씨(남편)에 대하여 : 아내에게 하자가 있지 않은 이상 남편이 법적으로 유리하지 않아 객관적으로 볼 때 남편이 원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지 않다. 보통 이혼할 사람은 굉장히 냉정하고 감정이 없는데, 아내가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것을 보면 아내는 아직 마음의 정리가 안 된 것 같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자녀들에게 좋은 부부 모델이 아니었던 것 같다. 자녀들이 자라면서 원만한 부부 생활을 목격하지 못했다면, 자녀들이 결혼을 못 하는 것에 남편의 책임도 있다. 이혼에 대해 더 생각해보면 좋겠다.

자. 2019년

16회기 진행, 31명(여성 21명, 남성 10명) 참여

▶ 2019년 3월 11일

-참가자 : 여성 1명, 남성 2명

- A씨 : 여성 30대, 혼인기간 19년, 자녀 2남(16세, 18세), 부부갈등 사유 : 무시/모욕, 알코올중독, 폭언
- B씨 : 남성 30대, 혼인기간 13년, 자녀 1남 1녀(10세, 12세), 부부갈등 사유 : 배우자의 이혼강요, 성격차이
- C씨 : 남성 30대, 혼인기간 10년, 자녀 없음, 부부갈등 사유 : 성격차이, 성적갈등, 불임

- 상담내용

① A씨(아내) : 최근 시아버지가 심부전 증세로 입원을 하게 되어 남편과 연락하는 유일한 사람인 시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니 소통할 길이 없어서 아내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남편은 시아버지의 병원에는 찾아가지 않으면서 아내에게는 자꾸 연락하여 이혼한 상태가 아닌데도 물건을 가져다 버리겠다고 자극한다. 이러한 남편의 행동에 아내가 무시로 일관하니 그 분노를 풀 곳이 없어 아이들에게 푸는 것 같다. 아이들도 부부의 이혼을 원한다. 그러나 아내는 여전히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이혼을 해도 돈이 문제이고, 남편도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

② B씨(남편) : 툭툭 쏘는 말투를 가진 아내의 성격 탓에 남편은 아내와 부딪힐 때가 많다. 서로의 불만을 이야기할 때마다 아내가 대화 자체를 끊어내는 식이니 남편도 화를 참지 못하고 다툼으로 변진다.

남편은 신장투석 중인 아버지를 대신해 어머니를 도와 집안 살림까지 도맡아 하고 있어 아내 만만치 않게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힘들다고 말하는 아내에게 서운함을 느낀다. 더불어 아내의 거친 언행으로 고부갈등까지 생겨났고, 아내가 남편을 폭행하는 사건이 생겨 이혼 이야기까지 오고 갔다.

한 번은 아내와 처가 식구들이 5박 6일간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때 남편은 다리를 다쳐 동행하지 못했고, 그 이후로 무슨 이유인지 아내가 더욱 냉랭해짐과 동시에 이혼을 요구했다. 그동안 아내는 돈이 없던 것이 아니라 이혼을 위한 자금을 마련했던 것이었고, 소장에는 이혼 사유로 경제적 갈등이 쓰여 있었다. 더불어 아이들도 별거를 권하고 남편은 본인이 집에 없을 때 나머지 식구들이 남편의 욕을 하는 것 같은 의심이 든다고 한다.

그러나 남편은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③ C씨(남편) : 남편과 아내는 12년의 연애 끝에 결혼하였고, 부부 사이에 자녀는 없다. 그런데 4년 전부터 갑자기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부부 간 주된 문제는 성적갈등이다. 연애할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결혼 후부터 아내가 성생활에 거부감을 보였다.

남편은 고부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결혼 후 제사 때 아내는 음식만 만들고 절은 거부하여 방에 있곤 하였다. 고부갈등은 없었지만 2-3년 전부터 아내가 시댁의 전화를 거부했다. 결혼 초기에는 시부모님을

게 정성을 쏟던 아내였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하길 원하던 부모님의 요구가 아내에게는 스트레스로 다가온 것 같다.

이처럼 결혼생활을 돌이켜보았을 때, 남편은 부부 사이에 특별하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처음 이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남편은 성적인 부분 등의 문제를 남편 스스로 감수하고, 교육 및 상담도 받으며 결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부부관계란 것이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은 남편도 이제는 지친 상태이다.

- 상담자 견해

- ① B씨(남편)에 대하여 : 내담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상담을 통해 얻어가고 싶은 게 무엇인지 스스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내담자와 아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아내도 나름의 고생을 했을 것이며 이혼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내담자 본인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 정할 필요가 있다.
- ② C씨(남편)에 대하여 :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는 것에 시부모님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 짐작되었고, 내담자는 시부모님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따로 내색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아내는 시부모님의 영향을 느꼈을 것이다. 내담자가 왜 결혼생활에 미련을 갖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혼은 스스로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사항임과 동시에 내담자가 아내와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차. 2020년

8회기 진행, 11명(여성 11명, 남성 0명) 참여

▶ 2020년 7월 27일

- 참가자 : 여성 2명

- A씨 : 여성 40대, 혼인기간 6년, 자녀 1녀(7세), 부부갈등 사유 : 장기별거, 폭언
- B씨 : 여성 30대, 혼인기간 5년, 자녀 1남(1세), 부부갈등 사유 : 무시/모욕

- 상담내용

① A씨(아내) : 아내는 7살이 된 아들이 태어난 이후 남편과 별거 중이다. 아내는 출산 이후 결혼생활에 대한 본인의 태도가 달라진 것도 별거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결혼 전, 아내는 남편을 이해하고 받아주려고 노력했으나, 출산 이후 아이에게 신경을 쓰면서 스스로 변해가고 있음을 느꼈다. 아내는 결혼 전에는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고 착하게만 살았다. 그러나 아내는 아이가 태어난 후 아이를 제대로 양육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변하기 시작했다. 이에 아내는 남편과 부딪히는 일도 많았다. 남편은 늘 아내에게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사람이라고만 했다. 남편은 아내와 대화하기 싫어하고 아내를 밀어냈다.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돌아선 결정적 계기는 남편의 외도와 폭력이었다. 아내는 남편에게 외도 증거도 보여주었지만, 남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겹치며 아내는 아이를 어떻게든 잘 키우고자 하는 마음이 매우 강해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다.

아내도 남편과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아이 때문에라도 이혼을 원하지는 않는다. 아내는 현 상태로 별거를 하되, 나중에 부부관계가 회복될 여지를 남겨놓고 싶다. 아내는 아이에게 아버지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시부모에게도 함부로 하는 남편에게 좋은 아버지 역할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여기고 있다. 아내는 구체적인 독립 계획을 생각 중이다.

② B씨(아내) : 남편은 결혼생활 내내 간헐적으로 폭력을 행했다. 남편은 임신 중이나 출산 직후에도 폭력을 지속하

였다. 남편은 자신과 의견이 충돌하거나 자신의 의견에 따라주지 않을 때 주로 폭력을 사용했고 아내의 친정 부모님께 사위로서 할 수 없는 말을 담은 문자를 자주 전송했다.

지난 결혼생활 동안 아내는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그러나 남편의 자기중심적 태도는 대화를 단절시켰다. 시어머니는 손자를 낳지 않는다는 이유로 늘 아내를 재촉했고, 결혼하고 한참 지난 이후에도 혼수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반복했다.

아내는 오랜 시간에 걸쳐 마음이 단절되었고 결혼생활이 나아질 기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더 참을 수가 없다고 했다. 아내는 변호사를 만나 이혼 상담을 진행했고 현재에는 소장 제출 전 단계에 와 있다.

- 상담자 견해

① A씨(아내), B씨(아내)에 대하여 : 내담자들의 태도가 매우 견고하며 회복하려는 의지가 없음에 안타깝다. 그러나 이는 내담자들의 잘못이 아니라 남편으로 인해 고통 받은 세월이 있었고,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일 것이다. 상담할 때 보통 화해를 먼저 권유하는데 이는 이혼 후에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 신중히 하라는 의미지, 이혼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상담소의 여러 교육을 통해 남편들이 많이 바뀌기도 하기에 화해의 의지가 남아있다면 상담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폭력과 무관심한 남편의 태도는 변화하기 힘들며 그를 용인하면서 살기도 쉽지 않다.

카. 2021년

10월까지 12회기 진행, 22명(여성 17명, 남성 5명) 참여

▶ 2021년 4월 12일

- 참가자 : 여성 2명, 남성 1명

- A씨 : 여성 50대, 혼인기간 22년, 자녀 2남(20세, 13세), 부부갈등 사유 : 성격차이, 대화단절
- B씨 : 남성 40대, 혼인기간 14년, 자녀 1남(14세), 부부갈등 사유 : 경제갈등, 배우자의 이혼강요
- C씨 : 여성 40대, 혼인기간 14년, 자녀 1남(14세), 부부갈등 사유 : 성격차이 (B씨와 C씨는 부부임.)

- 상담내용

① A씨(아내) : 작년 7월부터 남편과 아내는 각방을 쓰고 있으며, 아내는 아이들을 계속 챙겨주다가 살림을 놓게 되었고 자녀들은 사실상 방치 상태이다. 자녀들은 짜증이 많고 온라인 수업에도 지각하는 등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이지만 남편은 자녀의 이런 상태에 큰 신경을 쓰지 않는 상황이다. 사실상 남편은 양육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아내는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고 있으며 남편은 주말마다 골프를 친다. 또한 친정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해주고 계시지만, 남편은 평소 외부에서 친정이나 장모의 흥을 보는 경향이 있으며 화를 내기도 한다.

② B씨(남편) : 현재 별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계가 마이너스인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아르바이트로 생계에 돈을 보태고 있다.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자녀의 책을 사는 등 자녀에게 돈을 쓰며 아내의 빚이 매우 많았다. 빚을 빨리 갚아야 하는 상황인데 자녀의 양육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쓸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남편은 아내가 아이의 양육에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남편은 현재 몇 년에 한 번씩 지방에 내려가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와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바뀌려고 노력은 하는 편이다.

아내의 빚이 벌써 세 차례나 발견되었는데(카드값 등), 이를 한 번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제일 화가 난다. 또한, 부부 협의로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하려고 아내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하였는데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서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코로나로 상황이 악화되면서 은행 빚이 늘어나자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

는 것이 답답했다. 진짜 이혼을 할 생각은 없었지만 아내가 자꾸 상황을 회피하자 확실히 이혼 하자고 했다.

③ C씨(아내) : 마이너스 상황에서 남편은 아이의 학원비를 줄이라고 요구한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아이가 자살충동을 느껴서 유료로 상담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결국 이를 끊어버렸다. 영어학원도 7-8개월 그만둔 적도 있다. 남편은 아이의 공부까 봐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노가다라도 하라고 운동을 시키라고 한다. 아내는 남편의 이런 생각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운동도 돈이 적게 드는 것이 아닌데 아이가 배우고 싶어 하는 수학과 영어를 가르쳐야 한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하면 아이는 친정에 데려가서 아내가 키울 예정이다.

자녀가 맹장 수술로 아팠을 때도 회사에서 동료와 산행을 간 점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남편의 경제관은 가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돈에 목을 매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혼 하고 싶다. 이대로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사는 것은 노예 같다고 느껴진다. 더 이상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 상담자 견해

① A씨(아내)에 대하여 : 부모의 싸움에 자녀가 새우등이 터진 꼴이다. 엄마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엄마와 유대감이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아이의 경우 학교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상담을 받는 것을 제안한다. 이혼 문제도 문제지만 자녀를 위해서도 빠른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내가 은행이라는 직장에 다니고 너무 잘나 보이기에 남편 스스로 권위가 떨어진다고 느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B씨(남편)와 C씨(아내)에 대하여 : 어떻게 아이가 4학년 때 자살충동을 느꼈을까? 지금 부부 사이에 양육방법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경제적 문제나 양육 문제는 표면적인 문제이고, 그 아래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하

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돕는 아내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극단으로 치달으면 안 되고 해결이 필요하다. 아이의 맹장 수술이나 경찰서 등의 문제에 동행하지 않은 것은 남편이 잘못된 부분이 크다. 두 사람의 타협이 필요하다. 자녀의 양육 방식에 있어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남자와 여자는 양육 방식에 대한 사고가 다르다. 옳은지 아닌지의 문제가 아니라 의견의 차이이기 때문에 두 사람 간 타협이 필요하다. 남편은 현재 지향적 사고를 하고, 아내는 미래지향적 사고를 한다. 이혼 후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노력을 조금 더 하길 권한다.

제 4 절 소 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이혼 전 상담 프로그램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 보기」는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구조를 통해 내담자의 결혼생활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적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내담자의 내면의 문제를 심리적인 측면에서 좀 더 조명해 봄으로써, 결혼생활을 통한 내담자의 진정한 욕구가 무엇인지를 함께 찾으며, 성장과정 속에서 형성된 가치관과 고정관념을 내담자 스스로 인식해보고, 이를 통해 내담자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게 된다.

상담 초기에 내담자는 배우자가 나쁘고 모든 문제는 상대방에게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역할 연기를 통해서 내담자의 행동에 대한 배우자의 느낌과 생각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상담자가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역할연습을 통해 배우자가 어떤 경우에 문제의 행동(폭언, 폭력이나 음주 등)을 하는지 내담자에게 경험하게 하고, 그 상황 속에서 내담자 자신이 개선해볼 수 있는 점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부부가 함께 집단 상담에 참여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담자가 중립적인 역할을 하면서 부부관계의 갈등에 대해 서로의 입장과 느낌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때

로는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 보기」 2단계인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은 상담자가 답을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참석한 내담자들이 함께 대화하며 느낌과 생각을 나누는 가운데 서로 답을 찾기도 하고, 다른 내담자들의 문제를 보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돌아보는 기회도 갖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다른 내담자들의 사례를 보면서 자신의 문제를 객관화하여 성찰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경험은 이혼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서 선택의 폭을 좀 더 다양하게 넓혀 준다.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 보기」 2단계 집단상담에서는 특히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 받고 있는 내담자들에 대한 상담을 많이 진행한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일단 용서하더라도 그로 인한 배신감과 고통으로 인해 행복한 결혼생활이 유지되지 못해 부부관계가 악화 되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의 외도는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외도의 원인을 잘 살펴보는 것은 외도의 상처를 치유하고 결혼생활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다.

자녀의 이혼문제를 부모가 대신 상담하러 오는 경우도 있다. 몸은 성인이지만 심리적으로는 아이여서 문제를 만들어놓고는 부모 뒤에 숨어 책임지려 하지 않는 성인 아이와 자신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부모 상담도 한다. 또, 자녀문제로 가족 내 갈등이 심한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는 부모역할 교육, 대화법에 대한 강의도 하고, 실제 자녀를 상담소로 오게 하여 상담하기도 한다.

그리고 남편의 성격장애, 도박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으로 내담자의 안전을 위해 이혼 결정을 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이지만 내담자가 경제적 무능력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기도 한다. 그러한 경우, 내담자 스스로 남편에게서 독립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직업교육이나 진로 지도 등을 해주는 곳을 안내하는 상담을 한다.

그리고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 보기」 프로그램에

서는 내담자들의 이혼에 관한 잘못된 오해나 편견을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하려는 경우 올바른 선택기준을 제시한다.

이혼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진 내담자들에게는 이혼에 대한 잘못된 오해¹⁾들을 함께 생각 해보며 내담자의 결혼생활을 돌아쳐보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이혼하겠다는 결정과 마찬가지로 이혼하지 않겠다는 결정 역시 현명해야 한다.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결혼생활을 유지하겠다고 결정한다면 차후에도 같은 갈등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 보기」 프로그램에서는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결정에 앞서 내담자들에게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잘못된 기준과 바른 기준을 제시한다.²⁾ 결혼생활을 유지하겠다고 결정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기준으로는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싫다, 이제는 어떤 사람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버림받았다고 남들이 생각하게 될 것이 두렵다, 아주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 내 처지에서는 과분한 사람이다, 독신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다, 배우자의 사회적 지위를 더불어 누리고 싶다, 변화가 두렵다, 배우자와 함께 있으면 생활이 안정된다, 이혼남(녀)이라는 사회적 편견이 싫다, 아이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에는 너무 늙었다’ 등의 생각이다.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결정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서로 존중하는지, 대화가 통하는지, 함께 여생을 보내길 원하는지, 함께 잘 웃는지, 상대방은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인지, 서로 격려해주는지, 삶의 목표가 같은지’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 보기」 프로그램은 이혼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자신과 배우자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관계 개선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는지, 그 방향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이혼 후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천정환 변호사 조은경 상담위원

1) Michele Weiner Davis, 『The Divorce Remedy』, Simon & Schuster. 2001, pp. 51-58 참조.

2) 다이안 바로니·베티 켈리(최해정 역), 『나는 이혼하고 싶지 않다』, 제삼기획, 1988, 51-52면 참조.

음주에 관한 오해와 진실 (5)

여성과 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직장 여성의 인구가 많아지고 있으며, 여성 음주에 대한 사회분위기가 이전에 비해 관대해짐에 따라 여성 음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체지방의 비율이 높고 수분량이 적기 때문에 동일한 양의 술을 마셔도 남성보다 빨리 취하며 그 결과 과음으로 인한 피해도 남성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분해 효소가 남성보다 적기 때문에 위·간장 장애 등의 신체적인 문제가 빨리 나타날 뿐만 아니라 알코올 의존의 진행도 빠릅니다. 지속적인 과음은 유방암 발생을 촉진시키며, 생리불순이나 생리통을 유발하고, 불임과 조기 폐경의 원인이 됩니다.

여성의 경우 우울이나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우울이나 불안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면 본인이 원

치 않는 성관계를 가질 수 있고 임신의 가능성이 있으며, ‘안전한 성관계’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져 성병이나 AIDS의 감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만취하면 자신의 의지대로 몸과 마음을 통제할 수 없으므로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임신 중에는 술을 마시면 안 되나요?

- 임신 중에 술을 마시면 태아가 술을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태아가 알코올을 마시게 되면 유산이나 조산이 될 위험이 있으며 태아성 알코올증후군을 가진 아이를 낳을 확률이 높게 됩니다. 독한 술은 해롭고 약한 술은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되며 태아는 포도주, 맥주, 소주, 양주를 구분하지 못하므로 다 똑같은 영향을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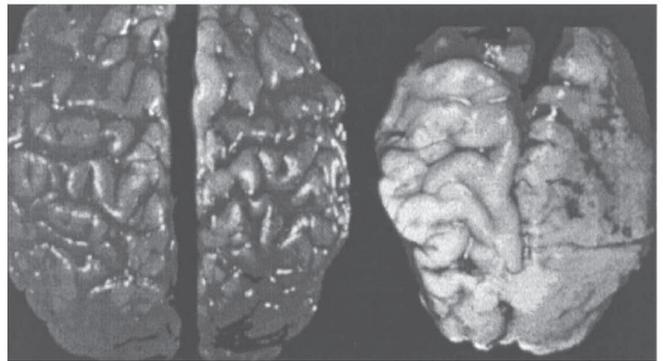
● 태아성 알코올증후군(Fetal Alcohol Syndrome)이란 무엇인가요?

- 알코올은 태반, 양막을 통과하여 어머니 몸 속에 있는 태

** 상담소는 일찍부터 우리 사회에 가정폭력의 문제를 제기하여 가정폭력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냈으며, 법의 제정 이후에는 가정폭력상담소로써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가정폭력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03년부터 ‘가정폭력예방지침서’ 시리즈를 발간하기 시작하였고 시리즈의 하나로 2006년부터 『음주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발행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음주관련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현실에서 상담소는 가정폭력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던 음주문제상담을 일반인들에게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건전한 음주문화를 위한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가정상담>에도 이 자료를 게재한다.

아의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어머니가 알코올중독자인 어린이의 약 43%가 태아성 알코올증후군(FAS)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아는 출생 시에 이미 발육부전이 있고, 뇌의 크기도 작아 약간의 정신지체를 보이며,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손과 발이 따로 놀게 되며, 기억기능도 떨어져 각종 감염증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비정상적인 발육 외에 주의집중력,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등 정신적 능력에도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정상적인 태아의 뇌 vs 어머니 몸 속에서 알코올에 노출되었던 태아의 뇌 〉



출처 : <http://www.come-over.to/FAS/FASbrain.htm>

〈 태아알코올증후군(FAS)의 특징 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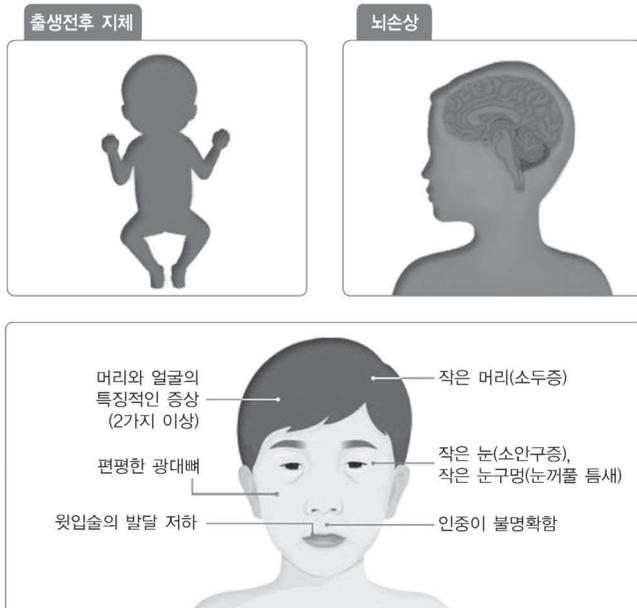
태아알콜증후군(FAS)의 특징	● 눈이 작고 미간이 넓다
	● 코가 낮으며 짧고 들창코이다
	● 인중 구분이 안 된다.
	● 윗입술이 아랫입술보다 얇다.
	● 얼굴이 납작하다.
	● 귀 모양이 이상하다.
	● 턱이 작고 덜 형성되어 있다.

술에 관한 오해와 진실

1. 술은 음식이나 음료일 뿐이다? (X)

술은 다른 음식이나 음료와는 달리 인간의 뇌(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고 중독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독될 경우 마약과 같이 끊기가 어렵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태아알코올증후군(FAS)의 특징 ② 〉¹⁾



〈참조 :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연구원, 대한의학회〉

2. 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모든 사람에게 같다? (X)

술 대사 능력, 신체 상태 등이 사람마다 다르므로 술에 의한 영향은 모든 사람에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술의 종류, 분위기, 신체 상태에 따라 매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강제로 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3.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는 것은 건강하다는 의미다? (X)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은 신체에서 분해되어 아세트알데히드로 변하고 다시 산으로 변해 몸 밖으로 배설됩니다. 아

1)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355007&cid=51362&categoryId=51362>

세트알데히드를 분해시키는 효소가 부족할 경우 아세트알데히드가 쌓여 술을 조금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는 것입니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숙취를 일으키고 신체 여러 장기를 손상시킵니다. 따라서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은 술로 인해 건강이 쉽게 상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해장술과 사우나는 숙취에 좋다? (X)

한 번 술을 마셨다면 적어도 2~3일 정도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 간세포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따라서 술로 인해 간세포가 손상된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면 간세포 손상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또한 술을 마신 뒤에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거나 사우나를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우나를 하면 남아있는 알코올이 땀으로 배설되면서 수분이 함께 빠져 나와 심한 탈수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5. 술잔을 돌려가며 먹는 것이 친목에 좋다? (X)

술잔을 돌리는 것은 침을 통해 간염을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고 내가 간염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경우 간염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 많으므로 이는 특히 위험합니다. 또한 술잔을 돌리는 것은 과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잔으로 자신의 주량에 따라 마시는 음주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6. 술도 자주 마시면 는다? (O)

‘술이 는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입니다. 술을 2주 정도 매일 마시면 간의 알코올 분해 능력이 30% 증가합니다. 몸의 유전자가 ‘이 사람에게는 알코올을 분해 효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적응하는 결과입니다.

7. 술 마신 다음날은 더 배고프다? (O)

음주자들이 한번쯤은 느껴봤을 과음 후 허기짐 역시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포도당 합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혈당치가 일시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때 몸은 마치 밥을 한 끼 굶은 것으로 인식해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8. 낮에 마시는 술이 더 취한다? (O)

이는 신체 리듬의 영향 때문입니다. 시간대에 따라 몸 상태가 다르고 알코올 분해 효소의 분비가 다릅니다. 술은 밤에 자주 마시기 때문에 낮에는 알코올 분해 효소가 덜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같은 양을 마셔도 낮에 쉽게 취기가 오릅니다.

9. 유전적으로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 있다? (O)

알코올은 오직 간 속에 있는 효소인 알코올 디하이드로게나제에 의해서만 분해됩니다. 이 분해 효소는 사람에 따라 그 양이 다릅니다. 유전적 소인이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흔히 아버지가 술을 잘 마시면 자녀도 주량이 센 경우가 많 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알코올이나 약물 의존성 환자이면 그 자녀들도 알코올 및 약물 의존성 환자가 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10. 토하는 것은 몸에 안 좋다? (X)

토할 것 같은 기분, 즉 구역 반사는 일종의 방어기전이므로 억지로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을 목에 넣는 등 일부러 토하려 하면 식도나 위의 상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을 토해내면 조금 있다 정신이 차려지는데, 이때 따뜻한 커피(중추신경축진제)나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꿀물이나 과일류를 주어 안정시키고 술로 인한 심한 탈수현상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11. 술을 마시기 전 위장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다? (X)

더 나쁠 수 있습니다. 술과 약물을 함께 복용하는 것은 간의 분해 효소 체계에 한꺼번에 두 가지 약물을 투여하는 결과가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제산제 계통의 위장약은 위를 보호할 수는 있지만 위벽에 있는 알코올 분해 효소의 활동을 막기 때문에 실제 혈중 알코올 농도는 20% 정도 높아지게 되어 더 취할 수 있습니다.

12. 술 마실 때는 담배 맛이 좋다? (X)

니코틴은 알코올에 잘 용해되기 때문에 술 마실 때 담배까지 피면 더 빨리 취하게 되며 구강암, 식도암, 후두암 등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담배에 있는 니코틴 이외의 유해 발암물질이 알코올에 용해되어 신체의 저항력을 매우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음주시 피우는 담배는 독이 될 뿐입니다.

13. 술을 마시면 성생활에 좋다? (X)

술을 한 두 잔쯤 하면 중추신경계가 약간 흥분되어 말이 많아지고 성적인 욕구도 생겨 부부관계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술을 과음하면 이런 의욕은 없어지고 점점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술의 대사 때문에 신체 에너지가 소모되고 사고나 판단력도 감소되어 있는데 곧 운동을 하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14. 여성은 남성보다 알코올성 간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O)

여성음주가 늘면서 여성 알코올 의존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여성이 상습적으로 음주를 하면 남성보다 빨리 중독됩니다. 그 까닭은 알코올 분해효소를 남성의 절반밖에 갖지 못하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같은 양의 술이라도 알코올의 폐해를 더 많이 받게 되고 간경변과 같은 간장질환의 발병률이 남성보다 훨씬 높습니다.

15. 술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알코올 의존자가 되나요? (X)

술을 마시는 사람이라고 해서 꼭 알코올 의존자가 된다는 법칙은 없습니다. 유전적, 환경적, 사회·문화적인 요인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상호 작용하여 알코올 의존이 발생하게 되므로 개인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 의존은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므로 먼저 본인이 알코올 의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갖고 건강한 음주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지켜주는 음주수칙

당신이 과거에 이미 음주량을 줄이려 시도한 적이 있으나 실패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음주량을 줄이는데 있어서 성공에 이르는 방법들입니다. 참고하세요.

1. 음주량을 줄여야 하는 이유들을 적는다.
2. '토요일에만 마신다', '혼자서는 마시지 않는다', '하루에 4잔 이상 마시지 않는다' 등 실현 가능한 규칙을 정한다.
3. 알코올 농도가 낮은 술로 바꾼다.
4. 누군가 술을 권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연습해서 술을 단호히 거절하도록 한다.
5. 술을 단숨에 넘기지 말고 음미하면서 천천히 마신다.
6. 술을 많이 마시는 친구를 멀리하고, 돌아가면서 술을 사는 일을 피한다.
7. 안주와 함께 술을 마신다.
8. 우울하거나 화가 났을 때 술을 마시지 않는다.
9. 또 다시 과음했을 때는 과음에 이르게 된 원인을 찾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10. 음주량을 줄이는 데 실패했다면 한두 달 동안 금주하는 방법을 택한다. 술을 줄이는 것보다 완전히 금주하는 것이 오히려 쉬울 수도 있다.

- 가정폭력예방지침서 ② 음주문제예방 「음주에 관한 오해와 진실」 중에서

마침내 이룬 호주제 폐지(1)

2003년 5월부터 12월까지	상담소, 전국적인 호주제 폐지 홍보
11월	법무부, 호주제 폐지를 담은 민법개정안 16대 국회에 제출
2004년 6월	법무부, 호주제 폐지를 담은 민법개정안 17대 국회에 제출
2005년 2월 3일	상담소가 주도한 호주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3월 2일	주도적인 호주제 폐지 운동의 결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의 국회 통과

호주제 폐지를 위한 여론 형성에 나선 상담소는 5월부터 12월까지 본부 및 전국 지부에서 권역별로 호주제 폐지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전국적인 호주제 폐지 홍보에 나섰다. 이어 상담소는 6월에 여성부 후원으로 호주제 폐지와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 ‘호주제 폐지, 우리는 평등이라 말한다 - 더 나은 가족제도가 기다리고 있다’를 개최했고, 9월에는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 주최로 ‘호주제 폐지 평등가족 실현 시민 한마당’ 행사를 열었다. 11월에는 법무부가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16대 국회에 제출했고, 상담소 광배희 소장을 비롯한 여성단체 대표들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소속 의원들을 면담하고 민법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12월에 상담소는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의원 1:1 면담 릴레이’를

펼쳤다. 이렇듯 상담소가 주축이 되어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 등 각 시민·사회 단체의 호주제 폐지 운동이 다양하게 펼쳐지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 심판에 대한 공개 변론 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2004년이 되었다.

2004년 6월 법무부는 17대 국회에 다시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중개정법률안을 제출했고, 7월 상담소는 299명의 국회의원 면담 릴레이 및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여성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 민주노동당 대표 등과 면담을 통해 호주제 폐지를 촉구한데 이어 9월에는 호주제 폐지에 대한 국회의원 입장 조사를 실시해 전체 299명 의원 가운데 197명인 65.9%가 호주제 폐지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얻어 냈다. 상담소는 10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위

*** 상담소는 지난 2016년을 창립 60주년의 해로 보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백년을 향해 나아간다는 전망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의 토대로 삼고자 상담소의 역사를 바로 알고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소의 연대기를 연재한다. 상담소는 지난 2009년 「번민하는 이웃과 함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를 펴낸 바 있으며, 이 연재는 이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원들에게 호주제 폐지를 촉구하는 편지보내기 운동을 펼쳤다. 이렇듯 부단한 노력의 결과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2005년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담은 민법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해가 바뀌어 2005년 1월 법무부는 호주제 폐지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신분등록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했고, 상당소 광배희 소장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2월 3일 헌법재판소에서 호주제는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이 내려졌고, 2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법개정안(대안)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3월 2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민법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호주제 폐지가 확정되었다.

마침내 이룬 호주제 폐지

2005년 3월 2일 제252회 임시국회는 재적 296명 가운데 235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 161, 반대 58, 기권 16 표로 호주제 폐지를 포함한 민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했다. 이때 통과된 민법중개정법률안(대안)은 호주제 폐지 및 친양자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여 마침내 우리 민법이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실현하게 되었다.

민법중개정법률안은 첫째, 호주에 관한 규정 및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규정을 모두 삭제하도록(안 제799조)하였으며 둘째,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신설하였다(안 제

908조의 2 내지 제908조의 8 신설).

또한 친권 행사에 있어 자의 복리를 우선으로 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하여(안 제912조 신설) 합리적인 가족관계와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길을 열었다.

이 밖에 민법중개정법률안은 자녀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 시 부모의 협의에 의해 모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하였고(안 제781조 제1항),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781조 제6항).

그리고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였으며(안 제809조), 여성에 대한 재혼금지기간에 있어 제소권자를 처까지 확대하고 그 기간도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내로 연장하였다. 상속에 있어서 상당 기간 등거하며 피상속인을 부양한 상속인에게 기여분이 인정되도록 하는(안 제1008조의 2)등 민법상 남녀차별조항을 조정하였다.

편집부



어린 시절 형제 자매 사이 폭력 경험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깊은 영향 끼쳐
가정폭력의 다양한 양상에 더 많은 관심 기울여야

2020버2** 상해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동생) 개별상담 6회, 교육강좌 3회
(Zoom Cloud Meeting 앱 사용,
비대면 진행), 전화상담 2회
어머니 전화상담 1회
등 12회

상담기간

2021. 1. 4. ~2021. 6. 29.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자매 사이이다. 행위자는 배우자의 외도와 폭력, 시모의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아들(5세)을 데리고 친정에 와서 지내던 중 2019년 12월 사건 당일 아들의 육아문제로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인 언니가 말다툼을 말리려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회 때리고 밟는 폭행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이모집으로 가서 지내고 있어 왕래가 없다. 행위자는 어머니집에서 아들, 남동생과 함께 지내며 어머니는 일을 하여 일주일에 한 번 집에 다녀간다.

행위자는 스포츠 강사이고, 이혼소송은 1년이 걸려 2020. 10.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행위자가 지정되었고, 양육비로 월 6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으며, 아이 아버지는 1달에 2회 아이를 면접교섭하게 되었다. 재산분할로 2천만 원, 위자료 1천만 원을 받았다. 행위자는 이혼이 불가피하였기에 소송이 잘 마무리되어 마음이 편안하고, 아이가 말을 예쁘게 하는 시기여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매우 행복하다고 하였다.

행위자는 자신이 폭력을 한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였다. 그러나, 자랄 때 언니인 피해자로부터 폭력, 폭언을 당한 경험이 많고 그로 인한 상처도 있는데 피해자는 자신의 폭력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또한 본사건에서 피해자의 폭력도 있었지만 행위자가 굳이 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법적 제재는 잘 이행할 것이지만, 피해자와의 화해는 지금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어머니가 피해자와 자신을 차별한 점에 대해 불만이 있었으나, 상담을 통하여 어머니를 이해하고 어머니에 대한 불만의 감정을 내려놓게 되었다.

어머니는 행위자가 어린 시절 피해자로부터 폭력을 당하여 상처를 받았음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는데, 흔히 있는 자매간 다툼 정도로 생각한 것이 잘못이었음을 인정하였다. 어머니는 행위자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행위자가 이혼 후 안정적으로 잘 지내고 있는 점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향후에도 잘 포용하겠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행위자의 전화를 차단하여 행위자는 피해자와 통화를 하지 못하고 어머니를 통하여 미안하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지만 종결상담시까지 피해자의 연락은 없었다. 향

후 관계개선이 기대된다.

행위자는 폭력을 반성하고 부과된 법적 제재를 잘 이행하였으며, 과거 폭력피해 경험에도 직면함으로써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게 되었다. 이혼 후 아이를 양육하며 일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상태에서 잘 지내고 있는 것을 격려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2020버2*** 상해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6회, 교육강좌 2회
(Zoom Cloud Meeting 앱 사용,
비대면 진행), 집단상담 4회
(비대면 진행), 전화상담 2회
피해자(아내) 전화상담 2회
등 16회

상담기간

2021. 1. 8. ~ 2021. 6. 30.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 지 20년이 경과 하였으며 부 사이 1녀 2남(20세, 18세, 16세)이 있다. 행위자는 2020년 6월 사건 당일,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안방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고, 피해자가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어 떨어뜨리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한 대 때리고 양손으로 양팔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의 양팔 등 몸에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본건 신고는 딸이 하였다.

행위자에게는 가부장적 의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기간 중 피해자와 성격 내지 생활방식 등의 차이를 이

해하지 못하고 귀가 시간, 집안청소 등 문제로 잔소리를 하고 통제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2018년에는 피해자가 동호회 회원과 통화한 일로 의심하고 갈등하였던 사실도 있었다.

초상담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폭력 사건 발생후 피해자는 이혼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행위자는 이혼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이혼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행위자는 이혼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부부상담을 희망하여 상담자가 피해자에게 의사를 타진하였지만 피해자는 이혼의사가 확고하다고 하면서 부부상담을 거부하였다. 이에 행위자가 상담을 통하여 결혼생활을 점검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상담의 목표를 정하였고, 행위자는 성실하게 상담에 참여하였다.

행위자는 주중에는 근무현장에서 지내고 주말에는 집에 가서 피해자와 지내지만 대화는 어려웠다. 이혼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2021년 6월 초에 있었으며 8월 초에 가사조사관 조사기일이 예정되어 있었다. 행위자는 피해자가 이혼 청구를 한 원인을 피해자의 취미생활에 대한 잔소리와 경제권을 주지 않은 점에 대한 불만이라고 하면서 현재는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주어 경제권을 직접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혼을 강력히 원하면 부득이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혼소송이 많이 진척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담을 종결하게 되어 상담자는 행위자에게 이혼 여부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행위자의 태도가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피해자에게 사과할 수 있다면 사과하고 진심으로 이야기해보고 싶다면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였으며, 행위자의 태도 전환이 어렵다면 이혼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소송에 임하도록 조언하였다. 피해자와 의견의 일치를 보아 이혼이 안된다면 좋고, 부득이하다면 행위자 자신의 멘탈 관리와 자녀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도록 당부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어떻게 할까요?



이 혼 14

●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Q 문 59 | 결혼한 지 4년이 되었는데, 한 번 자연유산이 된 후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남편은 아이가 없다는 것을 구실 삼아 폭행하고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아기도 못 낳은 주제에 무슨 위자료냐”라고 합니다. 저는 아이를 못 낳은 죄로 이대로 쫓겨나야 하나요?

A 설사 귀하에게 원래부터 불임증이 있었다 해도 그것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이혼에 이르르게 되었다면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처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남편이 학대를 하고 이혼을 요구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므484, 491 판결), 출산 불능이 법률상의 이혼사유로 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혼을 주장하고 구타를 해 온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1. 2. 26. 선고 89므365, 367 판결).

● 남편의 생식불능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Q 문 60 | 저는 결혼 7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어 검사를 받은 결과 아내는 정상이나 제가 무정자증으로 생식기능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아내는 주위 친지들에게까지 이 사실을 알리고 성불구자라고 모욕을 주더니 저와 싸움을 하고 친정으로 가 버렸습니다. 아내와 처가에서는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하며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합니다만 저는 이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혼을 당하게 되나요?

A 무정자증으로 생식불능이고 성적 기능이 다소 원활하지 못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므36 판결). 오히려 남편을 사랑하고 협조할 의무를 저버리고 남편을 성불구자로 몰아세우며 가출한 아내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중에서



Q 어머니는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와 동생을 출산하였고, 평생 홀로 저희를 돌보셨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보면 아버지가 존재하지만 평생 아버지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한 건 물론이고, 얼굴 한 번 본 적조차 없습니다. 3개월 전 어머니가 간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저는 성인이지만 동생이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이제 동생의 친권자는 아버지가 되는 건가요? 동생은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생의 친권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1항, 가사소송법 제44조). 위 생존하는 부 등이 위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3

항). 또한 가정법원은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민법 제909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909조의2 제5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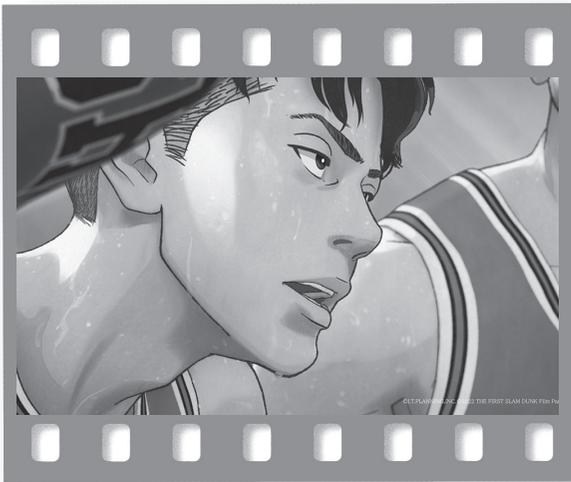
귀하의 아버지 또는 다른 친족이 귀하의 어머니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귀하의 아버지를 동생의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경우, 가정법원은 위 친권자지정 청구가 생존하는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909조의2 제4항).

민법은 부모가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909조 제1항). 따라서 귀하는 동생의 친권자가 될 수 없지만, 귀하의 아버지 또는 다른 친족이 귀하의 어머니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청구로 가정법원은 귀하를 동생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동생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귀하는 동생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생의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동생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가 있다면 귀하의 청구로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를 대행할 임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권지연 상담위원

더 퍼스트 슬램덩크

감독 이노우에 다케히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 젊은 어머니와 세 아이만 덩그러니 남았다. 학원 농구계의 재능으로 주목받던 중학생 형 준섭은, 초등학교생인 동생 태섭에게 있어 언제나 우러러보게 되는 동경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그런 형마저 친구들과 함께 바다낚시를 떠났다가 파도에 휩쓸려 사망한다. 형과 같은 등번호 7번을 달고 뛰는 태섭은 “형보단 못하네. 재 형이 진짜 잘했는데”라는 수군거림을 들으며 농구에 매진했다. 그는 168센티미터의 작은 신장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드리블 실력과 폭발적인 스피드를 앞세워 부산고 농구부의 주전 포인트가드 자리를 차지했다. 이제 부산고 농구부는 전국대회 32강전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 산왕공고와 맞닥뜨린다. ‘다크호스’에 불과한, 완전체가 결성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부산고 농구부가 패배를 모르는 산왕공고를 어떤 식으로 무너뜨릴 수 있을까.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주간 소년 점프>에 연재되며

수많은 독자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던 바로 그 만화, 스포츠 만화와 10대 성장물의 최고의 결합으로 꼽히던 <슬램덩크>가 25년 만에 새로운 장편 애니메이션 <더 퍼스트 슬램덩크>로 재탄생했다.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유명한 이야기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 수 있을까. 원작자이자 감독 이노우에 다케히코는 출판 만화 버전에서 조연에 가까웠던 포인트가드 송태섭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파격을 감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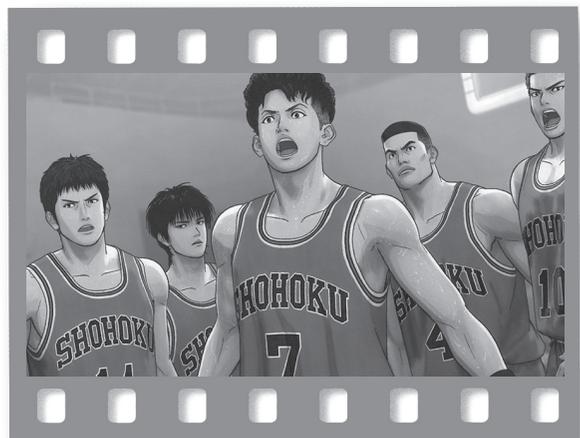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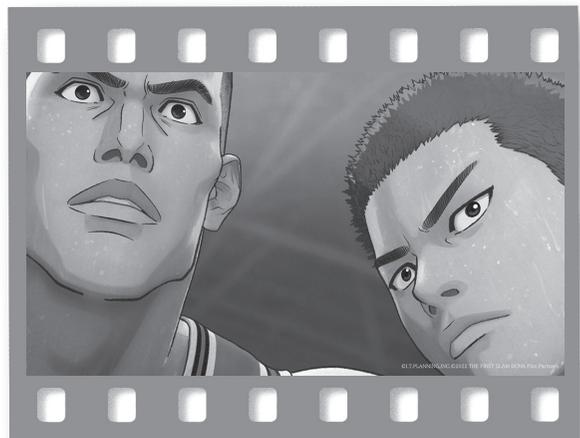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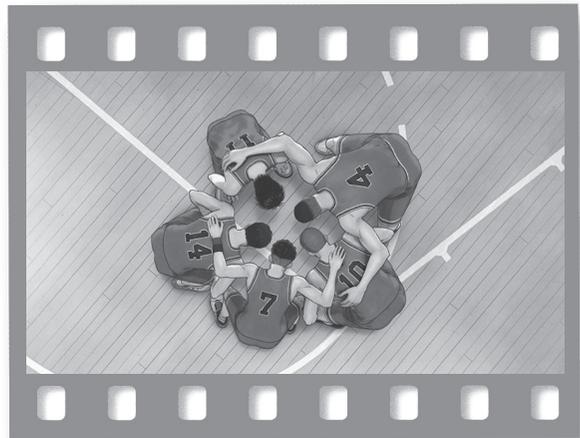
‘풋내기 천재’ 강백호나, 노력을 겸비한 슈퍼 루키 서태웅, 재능을 과신했다가 후회로 점철된 시간을 보낸 정대만처럼 확실하게 자신만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 부산고 농구부의 주연들과 달리, 송태섭은 그저 에너지 넘치는 명랑한 조연에 가까운 인물이었다. 만화에서 그의 개인사라든가 농구에 얽힌 진심이 전면적으로 부각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번 극장판에서 송태섭을 주인공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 이노우에 다케히코는 “내가 성장하던 시기인 20대 때 연재한 <슬램덩크>는 몸집이 크고 엄청난 능력과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주인공을 다뤘지만 그로부터 26년이 지난 지금은 아픔을 안고 있거나 아픔을 극복한 존재의 관점에서 그리고 싶었다”라고 설명했다.

송태섭이 뛰어넘어야 하는 존재는 너무 많다. 당장 코앞에 닥친 경기 상대인 산왕공고의 포인트가드 이명현은 고교 최고 수준으로 손꼽힌다. 어린 시절 어떻게든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던 형 준섭의 수비를 제대로 뚫지 못했을 때 느꼈던 좌절감을, 태섭은 이명현 앞에서 다시 한번 느낀다. 농구를 하기엔 왜소한 체구는 언제나 태섭을 준섭과 비교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한계였고, 체격 조건에서 그나마 비

교적 자유로운 포인트가드 포지션을 택하여 피나는 노력 끝에 북산고의 주전으로 자리매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섭은 언제나 형에게 혹은 상대팀 포인트가드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두려움과 열등감을 쉽게 떨치지 못한다. 이 근본적인 불안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자신의 노력과 재능과 땀의 의미를 어떻게 긍정하고 그것을 발판 삼아 도약할 수 있을 것인가.

이 핸디캡 많은 소년의 성장은, 농구에서만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하필이면 생일도 같은 날이었던 형, 같은 등번호를 달고 뛰었던 형에 대한 그리움을 떨치지 못한 엄마는 태섭과 시시때때로 갈등을 빚었다. 서로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나의 상처를 상대방이 더 먼저 알아주고 손을 내밀어주지 않는다는 서운함 때문에 자꾸 벗어나기만 했던 모자의 흠결 많은 마음은, 태섭이 먼저 손을 내밀면서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한다. 형 대신 내가 죽었어야 했을까, 라는 치기어린 원망은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감과 자신이 선택한 목표를 향해 돌진하겠다는 용기를 통해,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농구를 계속할 수 있어서 기뻐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뀐다. 누군가의 동생이라는 중압감에 짓눌려 살아왔던 소년은, 경기의 마지막 순간 비로소 자신의 장벽을, 불안을, 절망감을, 열등감을 돌파하여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자신만의 힘을 발견한다. 그 힘을 통해, 오랜 상처와 그리움의 대상을 비로소 진정으로 애도하며 떠나보낼 수 있는 용기 또한 낼 수 있었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주인공 송태섭이 그려낸 뜻밖의 선물, 뜻밖의 감동이었다.

김용언 영화칼럼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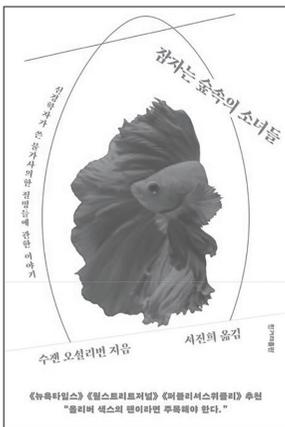
잠자는 숲속의 소녀들

신경학자가 쓴 불가사의한
질병들에 관한 이야기

수잔 오설리번 지음

서진희 옮김

한겨레출판, 2022(초판 1쇄)



디즈니 애니메이션이나 ‘말레피센트’ 같은 영화로 재해석된 샤를 페로 원작의 ‘잠자는 숲속의 공주’, 공주는 마녀의 저주로 물레의 바늘에 찔려 깊은 잠에 빠졌고 공주와 더불어 그 성의 모두가 잠들어버렸으며, 성은 가시덤불로 덮여버렸다고 했다. 그저 이야기라 생각했지만 이와 비슷한 일들이 오늘에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다만 그 원인은 마녀의 저주나 물레의 바늘이 아니라 난민 신청을 거듭 거절당하면서 받게 되는 절망과 압박, 혹은 풍요롭고 자랑스러웠던 자신들의 도시가 쇠락하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타의에 의해 갑작스럽게 떠나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체념증후군, 그리지시크니스, 집단 수면증, 집단 발작 등을 지켜보며 영국의 신경학과와 임상신경 생리학자 전문의 수잔 오설리번은 **“때로 질병은, 우리가 선택한 삶이 우리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신호가 된다”**고 말한다.

수잔 오설리번은 전 세계에서 심인성 장애를 겪는 공동체들을 직접 방문한 다음, 그 경험에서 얻은 질병과 고통에 대한 의학적인 통찰을 『잠자는 숲속의 소녀들』이라는 책에 담았다.

1장 ‘잠자는 숲속의 공주들’은 이 책의 집필 계기가 된 스웨덴 체념증후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다. 스웨덴어를 모르는 부모 대신 난민 신청 거절 통보서를 가장 먼저 읽게 되는 아이들, 거듭되는 거절 통보서를 보다 소녀들은 몇 달씩 깨지 않는 잠에 빠져 버린다. 지은이는 심인성 장애의 기본 개념을 살피면서, 이 같은 체념증후군이라는 증상이 한 사회의 목소리 없는 약자들(이 경우 아이들이)이 사회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한 가지 방식일 수 있다고 말한다. 2장 ‘정신 이상’은

중앙아메리카 니카라과의 미스키토인들이 겪는 ‘그리지시크니스’ 3장 ‘잃어버린 낙원’은 카자흐스탄의 쇠락한 도시 크라스노고르스크에서 있었던 집단 수면증 4장 ‘마음의 문제’에서는 심인성 장애로 죽을 위험에 처한 환자들 5장 ‘얼룩말이 아닌, 그냥 말’에서는 2017년 쿠바의 미국 대사관 직원들에게 일어난 스트레스로 인한 집단 증상 6장 ‘신뢰의 문제’에서는 콜롬비아 소녀들의 집단 발작과 국가와 의학에 대한 불신 속에서 백신 음모론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7장 ‘르로이의 마녀들’은 미국과 가이아나 여학생들의 집단 발작 이야기다. 마지막 8장 ‘정상적인 행동’에서 지은이는 특정 질병에 걸렸다는 믿음이 어떻게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거꾸로 특정한 증상을 질병으로 규정하는 순간 질병의 범주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살펴본다.

책의 8장 ‘정상적인 행동’의 부제는 **“화병부터 ADHD까지, 질병은 발명된다”**인데 이 문장만으로도 많은 것이 설명된다. 지은이는 본문에서 미국 이민자인 한국인들을 떠올리며 **“한국인 화병 환자들이 미국이라는 제2의 조국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해진다”**고 하면서 **“병의 발달과 진행을 최대한 잘 이해하려면 우선 그 병을 둘러싼 서사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다.

70년 전에는 청소년의 반항을 병으로 간주했다든지, 뇌에서 형성되는 병에 대한 원형은 문화적으로 결정된다든지, 그렇다. 질병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회적으로 패턴화되는 행동인 것이다.

이숙현 편집부장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장상담 시작

본소는 지난 2022년 11월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김용철)과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장애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강화를 위해 1월 10일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 본관 1층 종합민원실 내 사법접근센터에서 출장상담을 시작하였다.

법원을 찾은 이들은 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가사 관련 사안과 가족관계등록, 개인회생, 파산 등에 대해 본소의 소속변호사 혹은 전문 상담위원과 직접 상담할 수 있다. 또한 상담 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담소의 소송구조로 연계될 수 있다.

상담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법접근센터(본관 1층 종합민원실내)에 방문하면 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도 가능하다.

상담소 내부 감사 진행

지난 1월 27일 상담소 내부 감사가 진행되어 한미영, 최문원 감사가 2022년 회계 및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였다.

본소 교육부, 전국 교사 대상 교원직무연수

본소 교육부는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 경상도, 강원도에 근무하는 전국 초중고 교원(1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법과 생활」 교원직무연수를 진행하였다. 이번 연수에서는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률, 아동복지법, 가정폭력 관련 법률, 폭력예방교육의 이론과 실제, 신용회복제도, 임대차 관련 생활법률 등에 대한 강의

가 이루어졌으며 수강생들은 강의를 들은 후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을 하고 배운 내용을 간단히 실습하는 시간도 가졌다. 수강생들은 어려운 법률을 사례 중심으로 배울 수 있어서 이해가 쉬웠고, 가정과 학교생활에 매우 도움이 되는 강의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학교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직무수행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고, 주변에도 연수를 소개하고 싶다고 하였으며, 앞으로 더 많은 교사들의 참여가 기대된다는 소감도 전하였다. (관련사진 2면)

라디오 광고 기획 회의

1월 26일 본소 8층 회의실에서 2023년 라디오 광고 기획을 위한 회의가 있었다. 광고 기획 담당사인 베리모먼트사의 최성희 대표 및 윤종진 국장, 임소희 직원과 본소의 광배희 소장,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이 참석하였다.

아동권리보장원과 소송구조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1월 12일 상담소 8층 회의실에서 본소와 아동권리보장원 간의 위탁아동의 미성년 후견인 선임 소송구조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있었다.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 아동보호기획부 손호성 부장 및 우미효 대리, 이민정 주임

과 본소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과 김민선 변호사, 권지연 상담위원이 참석하였다.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 실무협의회 참석

상담소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과 김민선 변호사는 1월 30일 법무부 인권국 주관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개최된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대상 범위 조정 관련 실무협의회에 참석하였다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방역을 철저히 하며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프로그램이 비대면으로 진행 중이며, 순회상담의 경우도 상당 부분을 전화상담으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으나, 방역지침의 변화에 따라 본소에서도 점진적으로 대면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효율성을 기할 계획이다.

● 겨울방학 대학생 현장실습

2023.1.2.-2023.2.28.(이화여대) - 김안젤라, 임도경
2023.1.2.-2023.1.31.(동국대) - 이서윤, 한승연, 허수완, 현종원

● 출장상담

1.27. 애란원, 한부모가족을 위한 법률교육
- 조은경 상담위원

2023년 1월 상담통계

총 건수 4,267			
법률상담 (3,644)			
면접	전화	인터넷	순회
762	2,792	87	3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524		40	59

• 인터넷 정보 이용 57,702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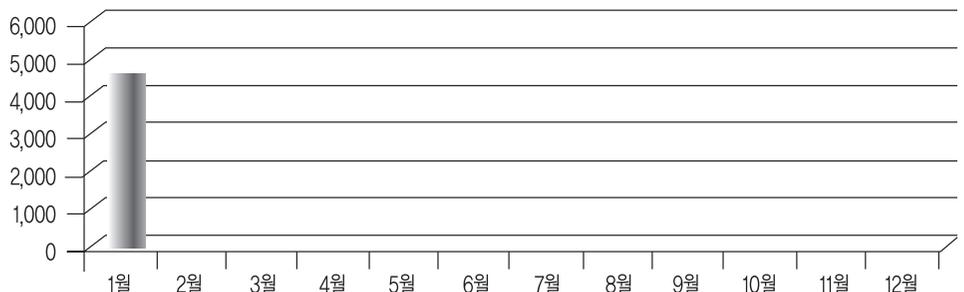
2023년 1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4,267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3,644건(85.4%), 화해조정 524건(12.3%), 소장 등 서류작성 40건(0.9%), 소송구조 59건(1.4%)이었다.

법률상담 3,644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2년 12월에 비해 유언·상속(7.1%→8.5%), 성변경(1.2%→1.4%), 파양(0.3%→0.4%),

미성년후견(0.7%→0.9%), 가사절차(8.4%→9.7%), 가사기타(13.0%→15.0%), 임대차(0.1%→0.3%), 민사절차(0.1%→0.3%), 형사절차(0.1%→0.2%), 형사기타(0.4%→0.9%)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3,644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762건(20.9%), 전화상담 2,792건(76.6%), 인터넷상담 87건(2.4%), 순회상담 3건(0.1%)이었다.

2023년
월별
총건수



해외 입양인 가족찾기 관련 소송구조 후기

갓 스무 살을 넘긴 한 청년이 여자 친구와 함께 신촌 부근 여인숙에서 방을 빌려 살고 있었습니다. 여자 친구가 임신하자 청년은 출산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으로 일을 하러 갔습니다. 두 달 뒤 청년이 일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을 때 무허가 여인숙은 이미 철거되어 있었고, 여자 친구와 뱃속 아이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두 돌 박이 여자 아기가 서울 영등포 경찰서 앞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아기는 엄마도 아빠도 자신의 이름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기는 영희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고 시설에서 생활하다 1년 뒤 먼 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영희는 자신을 낳아준 엄마 아빠를 찾고 싶었습니다. 영희는 유전자 검사 기관에 자신의 유전자를 등록하고, 블로그를 개설해 자신의 사연을 올렸습니다. 한국의 입양기관에서 자신의 입양 관련 기록을 찾아보고, 여러 방송국과 신문사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국도 다섯 차례나 방문했습니다. 14년 동안 가족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한 끝에 유전자 검사 기관으로부터 먼 친척을 찾은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영희는 자신의 친척일지도 모르는 한국계 남성과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남성은 자신의 할머니가 한국에서 이민을 왔는데 한국에 있는 할머니의 오빠가 영희의 생부인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50년 전 아내와 아이를 잃어버린 청년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노인은 미국으로 이민 간 여동생으로부터 자신의 딸을 찾은 것 같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노인은 태어났는지조차 알지 못했던 딸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노인과 영희는 유전자 검사를 받았고 2022년 여름 서로가 아버지와 딸임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렵게 찾은 딸과 자신의 관계를 법적으로 확인받고 싶었지만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딸이 한국에 오기로 한 가을이 되기 전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여러 기관을 찾아다녔고 서울가정법원에도 가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법원 출장 상담 중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으로부터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 있는 절차가 있고, 상담소의 법률구조를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담소는 법률구조를 통하여 미혼부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을 법원에 신청하였고 1주일 후 법원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확인서를 가지고 50년 전에 해야 했던 딸의 출생신고를 마쳤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서로가 가족으로 등재되었고, 딸은 아버지의 성과 아버지가 새로 지어준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법적인 가족이 된 아버지와 딸은 2022년 가을 인천공항에서 서로를 처음 만났습니다. 아버지를 찾은 딸은 이제 또 다른 뿌리인 어머니를 찾고 있습니다.

김민선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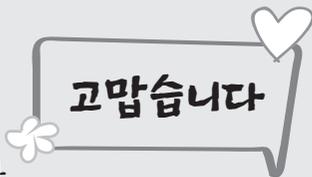


●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전규선,
천다라, 권지연 상담위원
김민선, 박슬기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1월 17일 본소 교원직무연수에서 가족법 및 법률구조 개정사와 이혼 등을 주제로 강의를 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1월 5일 KBS 1TV 시사직격 프로그램에 워킹맘들의 육아문제로 인한 부부갈등과 관련한 본소 상담통계 및 사례를 제공하고 인터뷰를 하였다. 12일과 19일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등 사건을 조정하였고, 18일에는 본소 동계 교원직무연수에서 “상속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Zoom 앱을 통한 화상 강의를 하였다. 26일에는 본소 라디오 광고방송 관련 회의에 참석하였다.



2023년 1월 자원봉사자

• 야간상담을 해주신

김소이, 이승주, 천정환, 황미옥 변호사님.

• 다문화가정 영어상담을 해 주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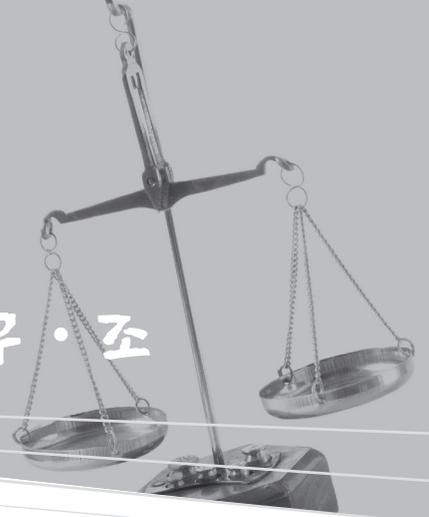
오영미 변호사님

후원 고맙습니다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이현혜, 천정환, 최정난, 김영수 님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18여 년 동안 아내와 전혼자녀, 친생자녀에게 폭언, 폭행 등을 한 남편과의 이혼

법률구조 2022-1-108

담당 : 이동규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50대)는 피고(남, 50대)와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한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 생활 초기부터 과도하게 음주하며 원고에게 폭언, 폭행을 지속적으로 행하였다. 또한 원고의 전혼자녀와 사건본인에 대하여도 폭언과 폭행을 하였고, 결국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약식명령 결정을 받은 사실도 있다. 원고는 18여 년간의 부당한 대우를 더이상 견딜 수 없어 2022. 3. 무렵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3. 1. 13.)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30.부터 2023. 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3. 1.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7. 제2,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1심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한 남편과의 이혼

법률구조 2022-1-133

담당 : 서치원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40대)와 피고(남, 40대)는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인 자녀 3명이 있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 폭행을 하였다. 2021. 6.경 피고는 원고의 머리채를 끌어당기며 원고의 귀 부분을 손바닥으로 때린 사건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원고의 주거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 재판은 피고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1심 판결이 확정된 이후 피고가 추완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원고는 항소심에 응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수원가정법원 2022. 11. 24.)

1. 제1심 판결의 위자료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30.부터 2022. 1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시

1) 매월 2회, 둘째, 넷째 토요일 12:00부터 다음날 17:00까지(1박 2일)

2) 하계, 동계 각 방학기간 중 서로 협의하여 정한 각 5박 6일

3) 설, 추석 연휴기간 중 서로 협의하여 정한 각 1박 2일

4) 기타 추가적인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나. 방법 및 장소

피고는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로 사건본인들을 데리러 가서 피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을 하고, 면접교섭이 종료되면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로 사건본인들을 데려다 주어야 한다.

다. 원고는 위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고,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4.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년 5개월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모에게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

법률구조 2022-1-143

담당 : 유유희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남, 50대)과 피신청인(여, 30대)은 2008. 9. 2. 혼인신고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었으나, 2016년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 당시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피신청인을 지정하고,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3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2018년 12

월경 사건본인의 양육자가 신청인으로 변경되었으나, 피신청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2021년 2월 신청인은 양육비 심판을 통해 과거양육비 6백만 원과 장래양육비 월 30만 원(2021. 3.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피신청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3. 1. 13.)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1. △. △.자 2020ㄴ단△△△호 양육비사건의 확정심판에 따른 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으로 2022. 5. 13.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중 4,000,000원을 분할하여 2023. 1.부터 2023. 8.까지 8개월간 매월 말일에 50만 원씩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혼한 전 배우자 자녀와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법률구조 2022-1-165

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내용 : 피고(남, 40대)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여, 70대)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원고의 전 배우자와 다른 여성 사이에서 출생하였으며, 원고의 친생자녀가 아니다. 심지어 원고는 피고를 한 번도 만나 보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다. 이에 원고는 당사자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을 확인 받고, 가족관계등록부상 잘못된 모자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2. 12. 15.)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생활비 부족으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2-1-297

담당 : 서지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30대)은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으로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다. 친모는 이혼 후 홀로 신청인을 비롯한 자녀들을 양육하였고, 생계비가 부족할 때면 신용카드와 금융권 대출을 이용해 충당하였다. 신청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친모는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성인이 된 신청인은 친모의 채무변제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신청인은 30대 초반의 나이에 희귀질환을 앓게 되었고,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보행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결국 소득활동을 중단하고 치료에 전념해야 했으며, 무직상태가 된 2019년경부터 생활비 충당을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의 채무가 쌓이기 시작하였다. 그래도 신청인은 책임감을 가지고 약 1년간은 채무상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들이닥치면서 채무 지급불능 상태가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최근 구직활동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신청인은 채무 독촉에서 벗어나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3. 1. 16.)

채무자를 면책한다.

건강악화로 채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2-1-300

담당 : 정상수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60대)은 편찮으신 친모를 모시고 살면서 병원비 지출이 늘어나 채무를 지게 되었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택시회사에서 일을 하였다. 하지만 경기악화로 손님이 줄어 월급을 얼마 받지 못하였다. 대출이자도 물론 원금도 제때 납입하지 못하게 되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설상가상으로 신청인은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뇌병변 1급 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고 장애로 인해 손과 발이 마비되고 글씨조차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와 같은 어려움으로 소득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게 된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었으며, 수급비와 장애연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장애로 채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신청인은 6,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3. 1. 16.)

채무자를 면책한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2023년 2월 교육부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하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오후 2시~4시
(2월 13일, 2월 27일, 3월 13일, 3월 27일)
-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

가족·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 일시 : 2023년 2월~11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5시 (※ 12월은 휴강)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사전예약 접수만 가능)
- ▶ 강사 : 김병후 원장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 강의방법 : zoom을 통한 비대면 강의 / 대면강의
-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정	강 의 제 목
2월 23일	행복의 조건
3월 23일	너의 의미
4월 27일	분노는 과학이다.
5월 25일	인간답게 살기 위한 선행 조건인 자율성
6월 22일	관계에서의 상처
7월 27일	공감능력
8월 24일	폭력적인 배우자에 대항하는 법
9월 21일	의심, 피해망상, 그리고 조현병
10월 26일	마음이란 무엇인가?
11월 23일	부부대화법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 캠프 」

비혼모 가정이 처한 법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혼모 가정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자녀동반 캠프

- ▶ 일시 : 2023년 8월, 11월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 후원 :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등지고실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 ▶ 일시 :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3시~5시
- ▶ 대상 : 서울가정법원 등 보호처분 대상자
- ▶ 진행 : 이서원 소장(한국분노관리연구소), 황순찬 초빙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일정 및 강의제목

일정	강 의 제 목	강사
2월 8일	조바심 : 될 듯 말 듯, 원하는 걸 빨리 이루고 싶다	이서원 소장 (한국 분노관리 연구소)
3월 8일	미움 : 내가 싫어하는 걸 가진 너, 너를 멀리하고 싶다	
4월 12일	우울 : 자꾸 어긋나는 일들, 내 뜻대로 살고 싶다	
5월 10일	열등감 : 나보다 잘난 너, 나 잘난 맛에 살고 싶다	
6월 14일	후회 : 원하지 않았지만 일어난 일, 현명하게 살고 싶다	황순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 학과)
7월 12일	매사 불만족과 관계갈등을 초래하는 성격장애	
8월 9일	시간이 흘러도 없어지지 않는 고통, 트라우마	
9월 13일	삶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기분장애	
10월 11일	존재를 삼킨 타인의 시선, 불안장애	
11월 8일	모든 걸 끝장내겠다는 충동, 불안조절장애	
12월 13일	갈망에서 시작된 절망, 중독장애	

생활법률강좌

-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전화 또는 메일로 신청)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관련 법률·가정폭력관련 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에 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관련 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교사들을 위한 법 교육 - 교원직무연수

가족법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전국 초·중·고 교원의 전문능력 함양을 돕는 연수 프로그램

- ▶ 연수과정명 : 법과 생활
- ▶ 과정구분 : 전문성향상 과정
- ▶ 연수기간 : 2024년 1월 16일(화)~18일(목), 1일 5시간, 3일간
- ▶ 이수시간 : 15시간(1학점, 성적산출 안함)
- ▶ 연수대상 : 서울·전국 초·중·고 교원 20명(선착순 모집)
- ▶ 연수운영 방법 구분 :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쌍방향 원격연수
- ▶ 연수경비(1인당 자비 부담액) : 무료
- ▶ 교과과정
 - 가족법 : 가족법 변천사 및 법률구조사/혼인 관련 법률/이혼관련 법률/부모·자녀 관련 법률/후견 관련 법률/상속·유언·유류분 관련 법률
 -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률
 - 아동복지법 관련 법률
 - 가정폭력 관련 법률
 - 폭력예방교육의 이론과 실제
 - 주택 임대차 관련 생활법률
 -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 관련 법률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따라 휴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1644-7077 F: 02-780-0485 홈페이지: www.lawhome.or.kr E-mail: edu@lawhome.or.kr 트위터: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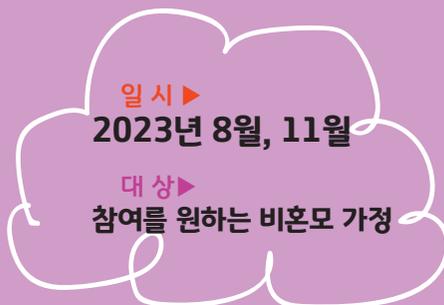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캠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자녀동반 캠프



1.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2.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 및 상담

3. 동반 자녀들을 위한 「놀이치료」

4. 온가족이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및 가족소통 체험활동」

▶ 후원 :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상상담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화상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예약신청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간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9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
전화상담 및 문의 **1644-7077**

다문화가정을 위한 야간 영어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9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사전 예약 필수)
사전예약 및 문의 **1644-7077**

www.lawhome.or.kr